

2021년 8월 5주 |

키움 ESG Brie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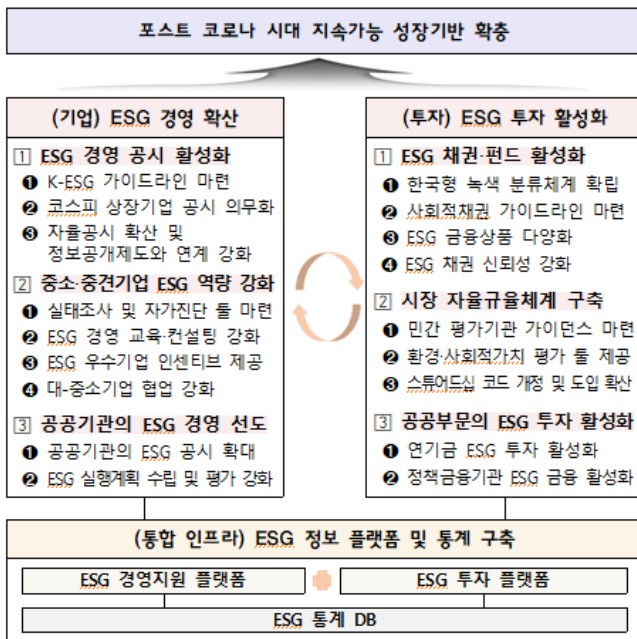


Issue Check:

기재부, 「ESG 인프라 확충방안」 논의

- 26일 기재부, 제 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 4개를 상정·논의. 그 중 세번째 안건은 「ESG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ESG 확산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 기본 추진방향은 1)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공시 및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단, 평가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관여 최소화), 2) ESG 확산 촉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 추진(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 ESG 경영 확산 및 ESG 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할 계획

ESG 인프라 확충 방안 - 기본 추진 방향



자료: 기재부, 관계부처 합동

주간 ESG 뉴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8/23~27)

▲ 기후 및 환경 관련

<p>8/23</p>	<p>미 바이든, 탄소국경세 도입 보류...그린플레이션 우려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민주당이 마련한 탄소국경세 도입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 탄소국경세 도입안은 조 바이든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마련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입안은 승인하지 않은 것. 이미 탄소국경세 도입을 발표한 유럽연합 등과 조세정책 등을 조율하는 동안 민주당이 마련한 탄소국경세 도입안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입장 - 백악관은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자동차와 가전 등 소비재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미국인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이 로이터 기자에게 전함. 또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과 관련된 탄소국경세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수단이라고 믿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특정 도입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발언 -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그린플레이션이 구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탄소국경세 과세가 이루어지면 소비재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 할 가능성 상존. 데이비드 웨이스바흐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 기업이 이를 국내 판매 가격에 전가한다면 탄소국경세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백악관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 <p>https://bit.ly/2UIM6lY</p>
<p>8/23</p>	<p>UK aims to boost solar by predicting cloud movements with A.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국가 그리드 전력시스템 공급기관(National Grid Electricity System Operator), 구름의 움직임이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점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필요한 AI 기반의 트래킹 시스템 개발을 위해 비영리 단체 Open Climate Fix와 협업 계약. 이 시스템은 국가 통제실에서 사용되며, 구름의 움직임을 며칠이 아닌 몇 분, 몇 시간 내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 - National Grid ESO 대변인에 따르면 Open Climate Fix의 "Nowcasting" 기술은 태양광 에너지 예측 정확도를 최대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 8월에 시작된 양사의 프로젝트는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영국의 에너지 규제 기관인 Ofgem이 £500,000 (\$683,100) 자금을 투자할 계획 - National Grid ESO의 혁신 전략 및 디지털 전환 담당자 Carolina Tortora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등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에게 정확한 날씨 예측은 저탄소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 예측 정확도가 올라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에너지들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 연료 발전소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p>https://cnb.cx/3gBbAzT</p>
<p>8/24</p>	<p>Blackrock's former sustainable investing chief now thinks ESG is a 'dangerous placeb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9년 블랙록에서 최초로 지속가능 투자 글로벌 CIO를 일임한 Tariq Fancy, 지속가능 투자가 몇가지 오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특히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용도로 사용하는 그린 본드는 현재 지속가능 투자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그 규모가 \$1조를 돌파했으나,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 이는 기업들 대부분이 그린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만한 양질의 친환경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또한 Fancy는 주관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ESG 데이터 및 등급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투자 업계 일각에서도 ESG 투자의 불명확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Sheila Patel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는 "ESG 펀드의 구성종목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임을 기억해야하며, 그렇기 때문에 ESG 펀드는 ESG 관점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업종 전망에 의존할 수 있다"고 설명 - 이와 더불어 Fancy는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ESG 투자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기간에 걸쳐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이나 기후 변화 대응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p>https://cnb.cx/3knot1z</p>
<p>8/24</p>	<p>탄소중립 이끌 혁신 기술에 '원자력' 빠져...글로벌 트렌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원천기술 개발 지원사업인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 과거부는 8대 핵심기술 분야로 ①태양광 ②풍력 ③바이오에너지 ④산업부산물 재활용 ⑤산업공정 ⑥이차전지 ⑦건물 효율화 ⑧디지털화 등을 지목.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8000억원을 8대 핵심기술에 투자할 계획 - 한편, 이번 발표된 핵심 8대 분야에 원자력이 제외되어 있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이어 원자력 발전비율 축소안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 23% 수준에서 2050년 6.1~7.2%를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해외의 경우 1)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삼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2) 중국은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전 가동 목표를 수립 중. 3) 미국은 기존 원전을 계속 운영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하는 등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지만,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분야 확대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나갈 전망. 4)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원전 운영 업체들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 보상금 24억 유로를 지급한다는 데 최종 합의 <p>https://bit.ly/3mzLctR</p>

8/24	<p>세계 최대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 기업에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압박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전문가 패널을 이끄는 마틴 스킨케 단장, 성명을 통해 탈탄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부펀드가 투자한 기업을 탈탄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의무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석유와 가스 분야 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등 모든 업종의 기업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 - 스킨케 단장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계속해서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투자해야 하나, 펀드의 투자전략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 스킨케 단장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심각한 환경 문제와 관련됐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찰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 <p>https://bit.ly/3msanyw</p>
8/25	<p>California to boost solar and wind capacity to meet renewable go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전력공급사(CASIO)가 202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 2021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CAISO는 올해 태양광 1.6GW와 육상 풍력터빈 0.4 GW 추가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배터리 저장장치 용량 또한 2.5GW 늘릴 예정 -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수소 생산과 수소 기반의 에너지 저장에 장려하기 위해 두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태양광 에너지 초과 생산량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최근 캘리포니아 주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화석 연료에 좀 더 의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과잉 공급으로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발전 감축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 <p>https://reut.rs/3ydi264</p>
8/25	<p>China's provinces still planning over 100 GW of new coal projects - Greenpea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에너지 최대 소비국이자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국은 2026년부터 석탄 소비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때까지 중앙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신규 석탄 프로젝트의 수를 '통제'하겠다고 주장 -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중국 성 정부들의 2021년 상반기 신규 석탄 프로젝트 승인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GW 이상의 신규 석탄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 올해 상반기 동안 이미 5.2GW 규모의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24개가 설립 승인된 것으로 집계 - 북경 지역 그린피스 기후 및 에너지 운동가 Li Danqing은 중국 정부가 언급한 '통제'가 신규 석탄 발전소 설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신규 승인 사례는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중앙정부의 역할도 핵심 이슈 중 하나인데, 중앙 정부가 석탄 발전 확장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 정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 <p>https://reut.rs/3DoVwep</p>
<p>▲ 기타/통합</p>	
8/24	<p>IFRS 재단 본격 힘겨루기 시작, 국내에서도 KSSB 준비위원회 만들어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재단,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하고 내년 4분기쯤 첫 ESG 기준을 제정해 공표할 예정. 한국회계기준원은 8월 초 ISSB 설립에 대응하고 국내 ESG 공시 등을 위한 심의의결 및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치. KSSB는 향후 ISSB에서 제정되는 ESG 공시 기준이 국내에서 채택, 사용될 때 이를 심의 자문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 - 서정우 KSSB 준비위원장에 따르면 ISSB의 기후 공시 기준은 내년 4분기쯤 공표되지만, ISSB가 기준을 제정하더라도 국내에 바로 적용되진 않을 예정. 정부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권고안이나 COP26 등 국제회의의 공동성명서를 고려해 ISSB 기준을 도입·이행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동안 KSSB는 국제 ESG 공시 기준을 번역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 기업과 투자자에게 배포할 방침. 빠르면 2024년쯤 국내에 ESG 공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ISSB 등 국제기구의 일정에 따라 2025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힘 -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은행들 사이에서 IFRS 재단의 ISSB 분사 유치, 및 IFRS 재단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p>https://bit.ly/3kmXiDZ</p>
8/25	<p>스위스, 영국, 태국 등 전 세계 정부들 지속가능금융 규제 도입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정부들이 기후 및 지속가능금융 규제안을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위스는 TCFD를 법률에 포함시켜 2024년까지 의무 적용하겠다고 밝힘 ▲태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지속가능금융 분류법을 도입하는 국제적인 대열에 합류 ▲프랑스는 올해부터 5년마다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공시하도록 규정 ▲영국은 내년부터 TCFD 권고안을 충족시킬 것을 기업에게 제안 - 스위스 정부는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는데, 이 의무 규정은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공기업, 은행 및 보험사, 혹은 자산 2000만(255억 원) 스위스프랑(CHF) 혹은 매출액 4000만 프랑(511억 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됨 - 태국정부 또한 지속가능 금융 분류법 개발에 착수했는데, 이에 따라 향후 태국 은행은 잠재 위험과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려면 ESG 리스크를 설명해야 함. 중앙은행, 증권거래소, 보험 및 재정정책 부서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규제 계획안을 세부 조정할 예정이며,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22년 1월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 <p>https://bit.ly/38bRcAA</p>

8/25	<p>The Cost Of Ignoring ES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몇 년 동안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클린에너지, 탈탄소화 및 분산 발전(distributed power)은 에너지 산업의 투자 동인으로 작용. 특히 US SIF Foundation에서 발간한 2020년 US Sustainable and Impact Investing Trends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미국의 전체 투자자산 중 약 17.1조 달러가 지속가능투자 자산인 것으로 집계 됨 - 이러한 성장세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ESG 관련 정책을 개발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표에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MSCI가 이와 관련해 약 4년 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ESG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은 ESG 점수가 낮은 기업들에 비해 자본 비용이나 부채 비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 - 또한 McKinsey에 따르면, ESG 점수가 높을수록 자본 비용이 10%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ESG 점수가 높은 기업들이 관련된 규제, 환경 및 소송 리스크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 결과적으로 ESG는 이제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으며,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이미 이를 수용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 <p>https://bit.ly/3z0vqc</p>
8/26	<p>홍남기 'ESG 공시 활성화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 홍 부총리는 이날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 공시 - 홍 부총리는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향후 ESG 경영 확장과 투자 활성화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 연계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이어서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한 K-ESG 가이드 라인에 국내외 주요 지표의 핵심·공통문항을 만들고, 2023년까지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차별화할 계획 <p>https://bit.ly/3ij0kcX</p>
8/26	<p>기후위기 관심 커지자 회계법인들 ESG 서비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전문지 어카운팅투데이, 올 여름 미 전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의 배경이 된 기후변화를 계기로, 회계법인들이 ESG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늘자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기업 공시가 확대될 기대하게 되었고, ESG 관련 투자펀드의 인기가 높아지자 미국 SEC가 기후공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벌어진 현상이라는 것. 실제로 SEC는 지난 3월 기후변화 공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연내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 보도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ESG 서비스 강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니스트&영은 기업들의 기후변화 이슈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진행 중. ESG 주제 전체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후 관련 주제와 공시 서비스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 딜로이트 역시 ESG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자사 회계사들의 서비스 참여를 유도. 딜로이트는 최근 ESG 문제가 회계와 보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무회계기준심의회의 기존 회계 규칙과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함. KPMG는 ESG 보고와 감사 측면의 인증 활동에 더욱 집중 <p>https://bit.ly/3mFht2D</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산업/기업 ESG 동향 Update (8/23~27)

▲ 기후 및 환경 관련

8/23	<p>세계 철강업체, 소재혁신 등 탄소문제 해결 적극 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산업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GHG)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의 7%~9%를 차지. 철강 1톤을 생산하는 데 평균 이산화탄소 1.83톤이 배출되는데, 전체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철강산업이 24% 비중 - 이처럼 철강 산업 내 탄소배출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거론되는 가운데, 스웨덴 철강 제조업체인 SSAB가 세계 최초로 트럭, 버스, 건설 장비 회사인 볼보 그룹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낸 강철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발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강철은 SSAB가 2016년에 설립한 '하이브리드 이니셔티브'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해 생산했으며, 전기 유틸리티 바텐폴 및 광산 회사인 LKAB와 협력해 화석 연료 대신 전기 및 수소로 심하게 오염된 코킹 석탄을 대체, 강철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 - 한편 국내 철강업체 또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 중.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그린철강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월 '철강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개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2030년 20%, 2040년 50%의 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2050년까지 수소 500만 t 생산 체제를 완성할 계획. 현대제철도 자체 탄소배출 저감을 추진, 지난해까지 3700억원을 투입해 당진제철소 1, 2, 3 소결공장에 청정 설비를 도입함 <p>https://bit.ly/3khprMG</p>
8/24	<p>SEforALL and Google to Launch New Compact to Decarbonize Electricity Global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동사의 에너지 소비에 있어 완전히 탈탄소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SEforALL*과 협업하여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컴팩트를(CFE: 24/7 Carbon-free Energy Compact)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이미 동사는 2030년 까지 전세계 모든 데이터센터와 사무실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행 중인 상태 - 구글과 SEforALL은 구글이 보유한 경험을 활용하여 24/7 CFE 글로벌 컴팩트를 구축할 계획이며 양측은 기업, 정부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글로벌 전력시스템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위해 24/7 CFE 원칙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 구글의 지속가능 책임자 Kate Brandt, 이번 글로벌 컴팩트 협업 작업 덕분에 에너지 정책, 기술 및 물품 조달 등과 관련해 혁신을 단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 *SEforALL: UN 및 정부, 민간 및 금융 기관, 시민사회 및 자선 단체의 지도자들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7(SDG 7)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협업하는 국제기구 <p>https://yhoo.it/38aMl2K</p>

8/24	<p>Iberdrola teams up with AECOM on hydrogen rail link in Ita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재생에너지 기업 Iberdrola(이베르드롤라), 미국 인프라 컨설팅 기업 AECOM 및 기타 단체들과 협력하여 이탈리아 철도를 친환경 수소로 운영하는 방안 모색할 계획. Iberdrola 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부에 4개 지역을 가로지르는 300 km (186 마일) 길이의 철도는 부분적으로만 전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오래된 디젤 열차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 - Iberdrola Italy 의 Lorenzo Costantini 매니저, 이번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 한편 Iberdrola 는 재생가능한 전기분해 요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운송 및 화학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 <p>https://reut.rs/2WyBixU</p>
8/25	<p>EGEB: Siemens will produce 1M more EV chargers in the US in the next 4 yea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멘스, 미국 시장을 위해 100 만 개 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EV 충전기 VersiCharge Level 2 AC 제조하여 기존의 EV 인프라 제조 생산 확대할 계획. 해당 충전기는 미국의 세 번째 e-모빌리티 허브가 될 새로운 시설에서 만들어질 예정으로, 2021 년에 공장 위치를 선택하고 2022 년 초부터 제조에 착수할 계획. 공장 현장과 지역 공급망 전반에 걸쳐 100 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동사에 따르면 지멘스가 제조할 충전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제조 현장과 가까운 협력사에 의해 제공될 것이므로, 이번 확대 계획이 지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 VersiCharge AC 충전기는 상업용, 업무용 및 가정용 충전기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테슬라 또한 어댑터만 있으면 지멘스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음 - 중국 기업 Mingyang Smart Energy 는 2023 년에 설치 예정인 풍력 터빈 프로토타입 MySE 16.0-242 의 세부 사항을 공개. MySE 16.0-242 는 높이 264m, 로터의 직경이 약 242m, 블레이드 길이는 118m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16MW 규모의 터빈은 2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연간 80,000 megawatt/hours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 또한 MySE 16.0-242 는 25 년 동안 Co2 배출량 160 만 톤 이상을 감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 <p>https://bit.ly/3DhS2m0</p>
8/26	<p>Gas Producer's Net Zero Pledge Challenged in Court by Activ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기업책임센터(ACCR, 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호주의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 Santos 가 2020 년 연례보고서에서 '천연 가스를 통해 클린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 제기. 이들은 또한 204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antos 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 ACCR 는 Santos 의 탄소 중립 로드맵이 입증되지 않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Santos 의 화석연료 가스 추출 및 처리 과정에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된다고 지적 - 최근 기후 운동가들은 대형 화석연료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해 법을 활용하기 시작. Royal Dutch Shell 은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동사가 계획한 목표보다 더 빨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고, 호주 정부는 연방법원으로부터 광산 작업 승인 시 기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시 받기도 함 - Dan Gocher ACCR 기후 및 환경 이사는 Santos 의 그린워싱 행위에 주주들이 현혹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친환경 기술을 위해 진실된 행동을 취하는 기업과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 간의 구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보다 큰 리스크가 주어지고 있다고 설명 <p>https://bloom.bg/3ymgISv</p>

▲ 기사/통합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Update (8/23~27)

▲ 주식 및 펀드 시장

8/23	<p>모건스탠리,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해 50조 달러 투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건스탠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핵심 분야에 50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 덧붙여,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 패널과 전기차, 개선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등과 관련된 공급자는 투자의 수혜를 크게 얻을 것으로 전망 - 모건스탠리는 주주들의 압력과 함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17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보다 적극적인 탈탄소화 추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한편 미국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다음 날인 18일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지출안에는 보육과 헬스케어, 교육 분야 지출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연구와 프로젝트 지원, 전기차 생산과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탄소국경세 도입안 등이 포함 - 기업들도 기후변화가 향후 경영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탈탄소화 플레이북"에서 클린테크와 자동차 및 공유모빌리티, 유틸리티, 멀티인더스트리(multi-industry), 화학, 에너지, 친환경 운송 등 7개 분야를 탈탄소화 추진의 수혜 업종으로 지목 <p>https://bit.ly/3DeTs8q</p>
8/26	<p>ESG is a Small Consideration for Equity Income Funds. That's Starting to Chan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ESG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ESG 투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ESG 투자 중 일부는 인컴형 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확장. S&P/다우존스의 상품관리 담당자 Aye Soe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배당(Income) 수익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투자하는 상품의 수익률이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에 관여하는 기업들로부터 창출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 두가지 투자 전략을 혼합한 펀드나 인덱스가 많지 않은 현실 - 모닝스타에 따르면 미국의 439개 ESG 펀드 중 8개 만이 배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해당 펀드들은 대부분 AUM이 \$1억 미만의 소규모 상품들로 여기에는 AUM \$550만의 ESG ETF도 포함. 모닝스타는 주식 배당과 ESG를 결합하는 것이 배당 투자자들에게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일반적으로 인컴형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배당(Income)을 원하지만 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설명. 더불어 배당주와 ESG 전략을 결합할 때, 주식 배당 전략이 가치주 쪽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많아 종목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 일부 가치주는 더 높은 ESG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 유틸리티나 에너지와 같은 탄소집약적 산업들이 해당 <p>https://bit.ly/3zwwtn9</p>

ESG: Why now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imes to be looking at this area'

-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ESG 리스크가 낮은 펀드로의 투자는 강제 지속, Beschloss Rock Creek Group CEO 는 과거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투자 분야를 살펴봤을 때 지금이 가장 흥미로운 시기 중 하나라고,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했다고 설명
- Beschloss 특히 코로나 19가 최근 ESG 투자의 변화를 가속화 시켰고, 투자 속도를 증가시켰다고 설명. Morningsta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내 지속가능 개방형 펀드와 ETF 전체 개수는 2019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지속가능 펀드로는 약 \$511억 규모의 자금이 유입 될 (2019년 기록의 두배 이상 수준). 뿐만 아니라 ESG 이슈를 투자 프로세스의 주요 사안으로 고려하는 펀드들이 2020년에 다른 펀드들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 마찬가지로 Morgan Stanley Institute for Sustainable Investing 에 따르면 2020년 1~6월 사이 S&P 500은 팬데믹으로 인해 저점을 찍은 반면 지속가능한 주식 펀드들의 수익률 중간값은 4.3%, 지속가능한 채권 펀드 수익률 중간값은 0.9% 기록해 피어 그룹을 아웃퍼폼

<https://yhoo.it/2UQ7mwr>

U.S. Authorities Probing Deutsche Bank's DWS Over Sustainability Claims

- 美 규제 당국, 도이치뱅크의 자산운용사 DWS 그룹의 전 지속가능성 투자 대표가 DWS 그룹의 지속가능 그룹 투자가 과대 평가되었다고 언급한 이후 동사에 대한 감독 강화. 현재 이번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DWS 변호인과 SEC의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 한편 이번 조사로 인해 DWS의 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도이치 은행 또한 업무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
- Wall Street Journal에서 인용한 전 지속가능투자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DWS 자산운용이 지속가능 투자전략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때로는 투자자들에게 현실보다 더 희망적인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고 설명.

<https://cnb.cx/2WIEU6F>

▲ 채권 시장

Central banks should not mandate 'green' investments: Raghuram Rajan

- Raghuram Rajan 인도중앙은행(RBI) 전 총재, 지속가능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책임은 이미 다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지적. 또한 금융 안정성 제공 의무를 지닌 중앙은행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영역인 친환경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
- 중앙은행에 브라운본드*가 아닌 그린본드만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자체적인 견해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 Rajan 전 총재는 중앙은행이 (지속가능 투자 장려) 대신 녹색 투자의 재정적 안정성과 암호화폐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기타 위험 요인들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주장

*브라운본드: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채권. 친환경 프로젝트 및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인 '그린본드'와 대척점에 있는 채권

<https://reut.rs/3Dm3KE4>

Verizon completes final allocation of its second \$1 billion green bond

- 버라이즌, 2019년 2월 미국 통신사 최초로 그린본드를 발행한 기업으로 Green Bond Impact Report 발간을 통해 그린본드 사용 내역 공시
- 버라이즌은 친환경 그리드로의 전환 지원, 2035년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까지 약 20억 달러의 그린본드를 발행. 버라이즌의 그린본드 프로젝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한 장기적인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
- 버라이즌은 두 번째로 발행한 그린 본드의 순수익을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 전력(virtual power)을 구매하는데 모두 사용.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7개 주에 걸쳐 약 1G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며, 그 중 약 83%는 태양광, 17%는 풍력으로 구성될 예정

<https://vz.to/2UVauY6>

ESG bonds likely to top \$10 billion by December, says JP Morgan

- JP 모건, 올해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그린본드 시장이 12월까지 약 \$1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2021년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는 \$25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175억 수준의 자금 조달한 것으로 집계. 그 중 ESG 기준을 준수하는 채권은 \$62억 차지.
- 한편 JP 모건은 기후 변화를 지원하고, 향후 약 10년 동안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솔루션에 \$2.5조 투자하겠다는 목표 설립. 여기에는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기술과 같은 녹색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 \$1조가 포함. JP 모건은 올해 현재까지 12개의 ESG 및 그린본드 판매를 시행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ESG 자금을 조달할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

<https://bit.ly/3DwvBl5>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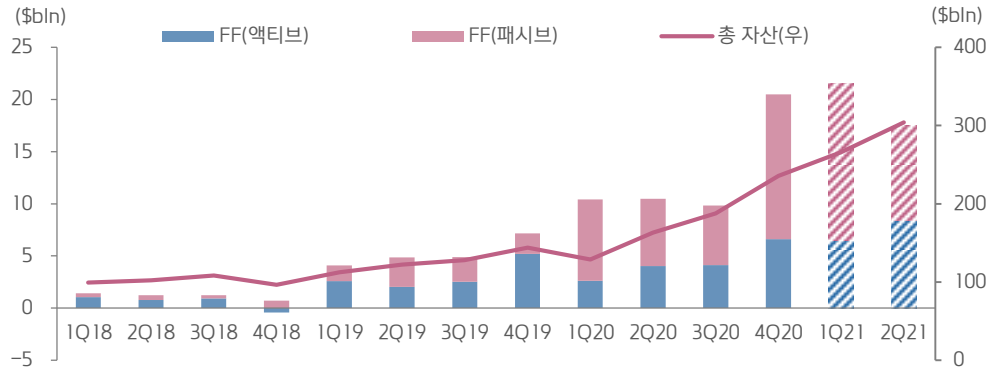
ESG 이벤트 일정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SFDR 발효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NFRD 개정안 발표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 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이번 제안에 따라 비 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 - 7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5/24~25	유럽	EU 정상회의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책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2050 탄소중립위 출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P4G 서울정상회의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28	유럽	유럽 기후법 승인	-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승인.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골자로 함 - 앞서 4월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28 일(현지시간) 합의안에 공식 승인한 것.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유럽이 처음
7/14	유럽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2030년까지 유럽내 탄소 55% 감축(1990년 대비)을 위한 전략으로 유럽집행위는 12개의 입법안 발표.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세(CBAM) 초안, 탄소거래제(ETS) 개정안 등이 포함 될. 이 외에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항공-해운-육상운송 산업 등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모습. 향후 Fit for 55와 관련된 포괄적인 방안은 앞으로 약 2년에 걸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
7/16	중국	배출권거래제 도입	- 중국 전체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상하이 거래소 한 곳에서 통합돼 진행 시작. 초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분의 1을 발생시키는 중국의 전력 기업 2,225곳을 대상으로 배출권 배정했고, 향후 적용 업종을 넓혀나갈 계획
3분기 중	유럽	ESAP 설립 입법안 상정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월 중	한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한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 탄소중립 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NDC 상황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 7월에는 2050 시나리오 위원회 안을, 8월까지의 NDC 위원회안을 마련
	중국-EU	중-EU 테크노미 개발 논의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테크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COP15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식적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UN 기후변화협약 COP26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 또한 ESG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SSB) 창설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
4분기 중	한국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 마련.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해 핵심-공통문항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1.12) -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구체화-차별화는 '22~'23년 진행, 국제 논의동향 등을 지속 반영할 예정
	한국	K-테크노미 마련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테크노미 마련.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 당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의 조율이 장기화되며 4분기 중으로 연기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 개정 및 도입 확산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투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도입 확산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21.6월 162개 기관이 채택 시행 중
	아세안	ASEAN 테크노미 개발 착수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테크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동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테크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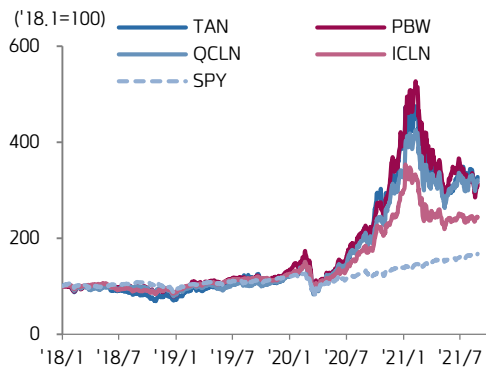
ESG Chart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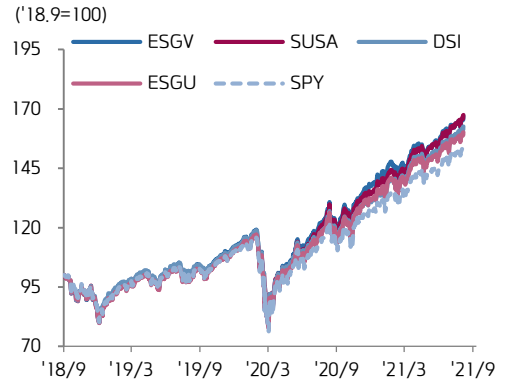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6월 말 기준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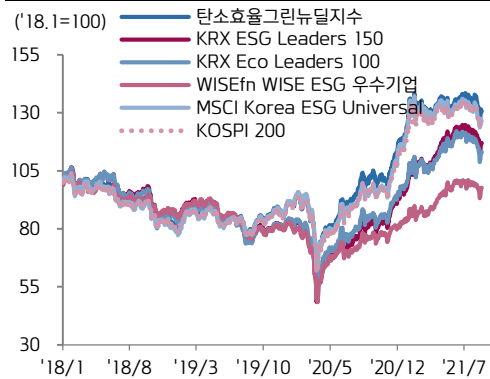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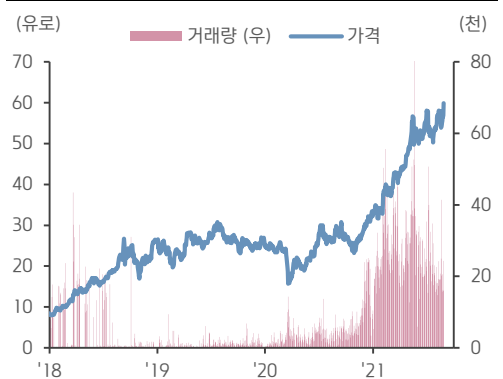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ETF 주간 수익률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22,795.3	+1.7	+2.1	+7.5	+20.2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6,959.2	+4.2	-0.6	-5.1	+1.1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6,679.3	+1.6	+1.3	-0.0	+11.0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2	6,170.7	+1.9	+1.5	+0.9	-18.1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5,223.6	+1.8	+2.3	+8.2	+19.9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4,030.7	+1.3	+2.7	+8.5	+22.5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959.7	+1.7	+2.8	+8.8	+23.0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884.8	+1.3	+2.6	+8.3	+22.7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468.2	+1.6	+2.5	+8.1	+22.3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3,149.8	+5.6	-0.2	+6.3	-18.1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2,660.4	+5.5	+1.3	+6.4	-5.3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552.4	+2.4	+0.7	-1.0	+8.2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0	2,020.6	+1.4	+3.4	+10.3	+26.0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1,860.0	+8.0	-2.9	-2.5	-21.7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488.0	-0.0	-0.1	+1.5	-1.4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464.1	+1.8	+2.2	+7.3	N/A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4	1,288.3	+1.7	+3.4	+8.9	+25.4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205.6	+1.5	+2.2	+7.4	+20.2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1,166.8	+0.9	+3.6	+10.4	+26.4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1,134.2	+4.4	-0.3	+3.3	+19.2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1,121.4	+4.5	+1.7	+1.3	+18.4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1,105.4	+1.2	+1.8	+2.0	+18.4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1,031.0	+4.4	+1.6	+0.5	+17.4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997.3	+0.1	-0.2	-0.3	-0.5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938.2	+4.4	-1.7	+2.0	-12.0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896.8	+1.9	+1.3	+3.3	+14.8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70.1	+3.8	+0.2	-3.2	+4.7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855.0	+2.1	+4.2	+14.1	+23.5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810.0	+0.0	-0.3	+2.4	-1.4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726.5	+1.5	+2.1	+7.9	+21.2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689.0	+10.1	+9.4	+14.4	+59.8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	614.3	+1.8	+0.5	+0.0	N/A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594.3	+2.1	+2.4	+2.9	+7.0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545.6	+1.7	+2.7	+9.4	+22.5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497.7	+1.1	+1.7	+6.3	+20.7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82.4	+1.2	+2.7	+9.3	+21.0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0	438.0	+1.9	+2.4	+8.1	+21.6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435.9	+3.6	+0.2	+4.3	+16.0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435.4	-0.0	-0.2	+1.3	-1.2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29.3	+3.5	+1.1	+3.8	+2.4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409.6	+4.6	-0.9	-1.3	-15.7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396.4	+1.1	+1.9	-0.3	-6.5
NUMG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374.3	+3.3	+3.6	+11.8	+16.4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68.2	+4.8	-1.4	-3.4	-9.9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339.9	+1.5	+2.1	+7.7	+21.1

자료: Bloomberg, 주) 2021-08-27 증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325.1	+0.6	+1.7	+8.0	+22.4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301.1	+1.9	+1.5	+6.5	-3.4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80.3	+2.0	+1.8	+6.0	+18.0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0	264.6	-0.0	-0.3	+1.1	-2.2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0	263.8	+1.6	+2.0	+7.1	+20.4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263.3	+4.3	+2.0	+12.9	+20.0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56.2	+2.8	+2.4	+1.6	+25.2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48.9	+1.5	+1.2	-0.0	+10.2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246.5	+1.5	+2.2	+2.1	+11.4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42.1	-0.5	-0.2	+2.2	-1.1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217.3	+0.1	-0.3	+2.2	-1.7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213.3	-0.1	-0.3	+0.8	-1.0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213.2	+3.8	-3.7	+7.2	+11.4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209.2	+1.7	+1.7	+0.9	+11.7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93.4	+4.1	+0.3	+10.0	+4.3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82.7	+1.6	+1.9	+5.2	+17.4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79.5	+1.6	+2.4	+7.7	+20.8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78.0	+2.5	+2.4	+6.0	+17.6
EEMX	SPDR MSCI EM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76.2	+4.0	-0.9	-6.3	-0.7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73.7	+2.7	+2.8	+9.7	+17.7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7	173.2	+0.0	-0.0	-0.0	-0.0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65.2	+5.4	+3.5	+3.9	-12.4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50.2	+1.5	+2.5	+8.5	+21.0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ESG	0.40	143.2	+1.6	+1.1	+1.2	+11.3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34.6	+2.1	-1.5	+2.1	-10.7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20.4	+1.4	+0.9	+5.9	+13.3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	117.6	+1.9	+1.4	+3.3	+14.5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ETF	사회책임, ESG	0.35	115.9	+0.6	-0.0	+1.2	+0.0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110.2	+3.2	-2.6	-4.7	+2.9
XVW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102.4	+1.5	+2.3	+7.9	+21.0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101.6	+0.6	+0.0	+0.1	-0.8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9.1	+0.0	+0.0	+0.8	-1.5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98.6	+1.2	+2.3	+6.5	+20.8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93.7	+1.6	+1.8	+9.0	+20.8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93.4	+1.4	+1.9	+4.8	N/A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6.8	+2.3	+2.6	+4.8	+23.4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	64.0	+2.3	+2.2	+8.5	+19.5
GSFP	The Goldman Sachs Future Planet Equity ETF	ESG	0.75	60.1	+3.0	+3.8	N/A	N/A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58.2	+1.0	+2.4	+7.5	+21.8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40.2	+6.9	-1.0	-12.2	N/A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 ESG	0.12	39.9	+3.2	+2.1	+1.2	+19.5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7.3	+0.9	+2.6	+8.4	N/A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36.5	+0.6	+0.3	+2.1	+3.7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4.4	+1.7	+2.6	+7.6	+19.2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4.2	+6.0	+0.1	-6.2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8-27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3.7	+4.5	-0.7	-5.3	+4.6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2.0	+1.8	+1.6	+7.9	+19.0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 Sovereign ETF	ESG	0.35	30.7	+0.9	+0.4	+0.5	-2.4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 ESG	0.12	30.2	-0.0	-0.3	+2.4	-1.5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7.5	+1.9	+3.0	+8.3	+21.5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7.4	+1.6	+2.0	+7.5	+21.2
ESGB	IQ MacKay ESG Core Plus Bond ETF	ESG	0.39	26.5	+0.0	-0.2	N/A	N/A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24.7	+4.0	-0.9	-5.5	+2.0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Y Corporate Bond ETF	ESG	0.2	24.5	+0.7	-0.3	+0.6	+0.7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21.6	+4.4	+3.4	+19.5	+17.7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21.2	+1.2	+1.9	+2.0	+22.6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20.5	+1.7	+1.1	+3.2	+12.0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9.1	+1.2	+1.5	+0.4	+9.3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18.7	+0.3	+2.0	+3.5	+15.2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8.2	-0.9	+1.4	+3.2	+7.7
XI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 ESG	0.12	16.1	+3.8	+2.4	-0.1	+20.8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15.4	+3.2	+0.7	+2.2	+10.7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8	15.3	+4.1	+2.8	+4.6	+15.4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13.4	+3.9	+0.6	-2.3	+6.3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1.0	+3.5	+2.4	+1.8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7	+3.8	+2.4	-0.2	N/A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10.6	+1.7	+2.8	+3.5	N/A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0.5	+2.9	-2.4	-9.2	-3.5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0.5	+2.9	-2.4	-9.2	-3.5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10.0	+1.9	+1.0	+8.5	+14.2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9.9	+5.6	+2.2	+1.8	+25.3
PFUT	Putnam Sustainable Futur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64	9.1	+2.9	+1.4	+10.9	N/A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8.9	+1.6	+3.2	+8.8	+24.4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 100 ETF	청정에너지	0.87	8.6	+3.7	+0.4	+3.3	+3.0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7.9	+1.1	+0.8	+0.9	+11.6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9	+1.3	+0.9	+2.7	+8.8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7.8	-0.1	-0.4	+2.2	-2.2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7.5	+0.8	+1.5	+7.7	+19.7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0	7.5	+0.5	+2.3	+6.7	N/A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9	+0.8	+0.6	+2.3	+5.5
SDGA	ImpactShares SDG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7	+1.7	+1.7	+2.6	+11.5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6	+1.0	+0.1	-2.8	+10.2
ESGY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Growth ETF	ESG	0.39	5.6	+1.8	+2.6	N/A	N/A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5	+1.5	+1.8	-0.9	+23.4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 ESG	0.79	5.4	+2.7	+4.2	+8.6	+12.2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39	5.0	+1.3	-1.0	-2.5	N/A
LGBT	LGBTQ+ ESG 100 ETF	ESG	0.75	4.1	+1.5	+1.2	+7.2	N/A
FSST	Fidelity Sustainability US Equity ETF	ESG	0.59	3.8	+1.9	+3.1	N/A	N/A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0	2.4	+1.5	+2.3	+7.3	+22.6
EPRE	First Trust TCW ESG Premier Equity ETF	ESG	0.85	2.1	+2.4	+0.6	+6.5	N/A
FDWM	Fidelity Women's Leadership ETF	ESG	0.59	2.1	+1.9	+1.6	N/A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9	+2.1	-0.4	+1.0	+21.8
DTOX	Amplify Cleaner Living ETF	청정에너지	0.59	1.2	+5.4	-3.6	N/A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8-27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8-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4주) https://bit.ly/2WxRuZc
2021/08/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3주) https://bit.ly/3gKxqki
2021/08/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3주) https://bit.ly/3g2EKHK
2021/08/11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글로벌 연기금과 펀드의 ESG 투자 https://bit.ly/2XmL6eu
2021/08/0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2주) https://bit.ly/3g2EKHK
2021/08/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2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xug1QU
2021/08/0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1주) https://bit.ly/3jPD1H5
2021/07/26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5주) https://bit.ly/3A0gLAn
2021/07/1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4주) https://bit.ly/3zwIBVV
2021/07/1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3주) https://bit.ly/3imCdsg
2021/07/05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2주) https://bit.ly/36uDxnC
2021/06/28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5주) https://bit.ly/3hfBREr
2021/06/2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4주) https://bit.ly/3gYwUJ2C
2021/06/1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3주) https://bit.ly/35GxDix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https://bit.ly/3gJAleM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https://bit.ly/3uR3veJ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https://bit.ly/3i283vZ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https://bit.ly/3ugg4ce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https://bit.ly/2QJ0yFx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bt8R97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https://bit.ly/3tLTsq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3kdTdi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https://bit.ly/3eO4szl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tLGgCi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https://bit.ly/3bqxpzu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https://bit.ly/3uPfpX0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https://bit.ly/2S0Cifk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https://bit.ly/3w8O1D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https://bit.ly/3eMeqS8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https://bit.ly/3uZXZr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